

지구촌 공동체 감사운동

“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찾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” - 0335
“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일할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.” - 9945
“힘든 상황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” - 8001
“Praise for You are my source of strength, hope, and peace!” - 5480
“구원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.” - 2369
“오늘 하루 또 버티고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.” - 3230
“하나님, 힘든 뇌수술에서 소생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중환자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.” - 2323

“ _____ ? ”

여러분의 **고백**은 무엇인가요?

우리의 삶은 **관점**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.

매일 아침마다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출근 준비를 할 때,
누군가는 ‘아- 정말 지긋지긋하다.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다.’ 생각하지만,
누군가는 ‘아-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직장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다!’ 라고 생각합니다.

예기치 못한 건강 악화로 힘든 뇌수술을 받았을 때,
누군가는 ‘아- 왜 나에게 이런 일이.. 내가 잘 회복될 수 있을까?’ 생각하지만,
누군가는 ‘**뇌수술에서 소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.**
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.’ 라고 생각합니다.

<감사>는 철저히 우리의 **의지**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.
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, 믿음 없음을 선택할 것인가.
왜 감사와 대조되는 말이 ‘믿음 없음’일까요?

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**<하나님을 향해>** 감사하는 것.
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**<하나님을 신뢰함으로>** 미리 감사하는 것.
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**믿음의 증거**이기 때문입니다.

오늘을 살아내시는 성도 여러분,
여러분의 믿음을 <감사>로 고백해 보세요.
진심이 가득한 <감사>의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.

“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
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”
(시편50:23)



지구촌 공동체 감사운동 참여하기
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비추면, 해당 웹페이지로 가실 수 있습니다.